

‘상호존중 학교문화 스토리 & 콘서트’ 성료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동체가 주도하는 상호존중 학교문화 확산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8일 남부청사에서 교육구성원의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2025 상호존중 학교 문화 스토리 & 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도내 학생, 학부모, 교직원, 교육전문직원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업무 담당자 등 200여 명이 참여했다. 무대에서는 ‘상호존중 학교문화 자율운영교’의 학교 구성원이 각자의 자리에서 실천한 존중 사례가 소개됐다.

소개된 내용은 ▲(학생) 학교생활 속 실천 경험 ▲(학부모) 학부모회 활동을 통한 확산 노력 ▲(교사) 교육과정에서의 실천 등이다.

행사는 단순 발표와 공연을 넘어 청중이 직접 소통하는 참여형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상호존중 학교문화 캠페인송 공모’ 수상자가 무대에서 직접 노래를 선보였고 이어진 ‘상호존중 토크’에서는 패널과 청중이 함께 학교 현장 적용 방안을 자유롭게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서로의 노력을 격려하며 존중 문화를 함께 만들어가려는 의지를 다졌다. 또한 존중은 혼자가 아닌 공동체가 함께 실천할 때 지속될 수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교육공동체가 협력과 존중의 가치를 함께 실천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존중이 일상에서 실천되는 학교문화를 확산할 방침이다.

송민수 기자

경기도-한국은행, 정책협의회 외식산업 위기 타개 모색

28일, 경기도·한은, 외식산업 구조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협의회 개최

외식업의 영업비용 증가, 소비문화 변화 등 구조적 문제 해결 방안 논의

경기도는 28일 한국은행 경기본부와 함께 ‘외식산업의 수익구조 변화 및 지원방안’을 주제로 정책협의회를 열고, 외식업계 위기 극복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는 영업비용의 증가, 소비문화 변화 등으로 인한 외식산업 수익성 악화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관련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정두석 경기도 경제실장과 장정석 한국은행 경기본부장을 비롯해 이정희 중앙대 교수, 김삼희 한국외식산업연구원 본부장, 정동관 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도 남부지회장,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관계자 등 전문가들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한국은행 경기본부의 ‘외식산업 수익구조 변화와 시사점’ 연구보고를 비롯해 이정희 중앙대 교수, 김삼희 한국외식산업연구원 본부장, 정동관 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도 남부지회장,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관계자 등 전문가들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요 해법으로 언급됐으며, 참석자들은 외식산업의 구조적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지자체·현장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두석 경기도 경제실장은 “외식산업은 서민 생활과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업종이지만 현재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며 “이번 협의회를 계기로 경기도와 한국은행 경기본부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실질적 정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외식업계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 개최, 전국 최초 소상공인 운영비 카드인 ‘더함내GO 카드’ 지원,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한 ‘공공배달업’ 운영 등 기존 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해 골목상권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화성특례시, 중장년 남성 자살예방을 위한 100인 토론회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지난 27일 푸르미르호텔 사파이어홀에서 화성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살예방분과·화성시자살예방센터 공동 주관으로 ‘중장년 남성 자살예방을 위한 100인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역의 주요 자살 고위험군으로 꼽히는 중장년 남성층의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시민과 전문가, 유관기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인 자살예방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은 주지역 서울시자살예방센터 상임팀장이 진행을 맡은 가운데, 참여자 모두가 주체가 돼 자유롭게 논의에 참여하는 ‘오픈스페이스(Open Space)’ 방식으로 진행됐다.

토론에는 화성시서부·동탄·동부보건소, 화성시자살예방센터, 29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통합사례관리사, 한림대 동탄성심병원 생명사랑 위기대응센터, 푸른 사다리(상당유관기관 연합회), 지역사회 복지관 등 자살예방사업 유관기관 실무자 100여 명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중장년 남성이 위기 속에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이유 ▲지역 내 실천 가능한 자살예방 방안 ▲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 전략 등의 주제와 관련된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며 지역사회 각 분야의 다양



지관 등 자살예방사업 유관기관 실무자 100여 명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중장년 남성이 위기 속에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이유 ▲지역 내 실천 가능한 자살예방 방안 ▲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 전략 등의 주제와 관련된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며 지역사회 각 분야의 다양

한 생각과 경험을 공유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자살은 어느 한 기관이 아닌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중대한 사회 문제”라면서 “지역 내 유관기관과 유기적으로 연대해 지역 내 안전망 구축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성남시 ‘어르신과 함께하는 어린이 예술제’

‘제21회 어르신과 함께하는 어린이 예술제’가 10월 28일 오후 2시~4시 성남시청 1층 온누리에서 성남시 국공립 어린이집연합회(회장 조옥자) 주최로 열렸다.

성남시가 후원한 이날 행사는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이도 어르신도 행복한 성남, 0100 사랑 나눔 꿈’을 잇다’를 주제로 진행됐다.

“0세부터 100세까지 세대 간 소통한다”는 의미에서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원아들은 재롱잔치를 벌이고, 어르신들은 노인종합복지관에서 갈고닦은 공연 실력을 뽐내는 예술제가 펼쳐졌다.

무대에 오른 3개 팀의 국공립어린이집 원아들은 사물놀이(21명), 다도시연(8명), 빙글빙글 댄스(24명) 공연을 했다.

3개 팀의 어르신들은 전통 춤(9명), 하와이 훌라춤(11명), 우쿨렐레 공연(10명)을 선보였다. 세대 간 함께 즐기는 소통의 무대가 마련돼 참석자들의 호응 속 박수갈채가 이어졌다.

성남시립국악단의 타악기 퍼포먼스 ‘무태평’, 초청 가수 박일준의 ‘놀이복시’, 도은혜 전자바이올린 연주가의 트로트 연주 등 축하공연도 마련돼 예술제의 분위기를 달궜다.

파주시, 성평등 공간 조성 민관협의체 구성

파주시는 지난 2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성매매집결지 폐쇄 이후 성평등 공간 조성을 위해 의견을 제시해 줄 민관협의체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민관협의체는 관련 공무원 4명과 민간위원 14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촉식은 ▲위원회 경과보고 ▲위원장 수여 ▲성평등 공간 조성 사업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민관협의체 위원들의 임기는 2025년 10월 24일부터 성평등 공간 조성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로, 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다. 위원들은 시설물 설계와 조성 과정에 참여

해 시민들이 실제로 사용하고 체감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들은 공간의 설계와 배치, 그리고 각종 시설물이 시민들의 편리함과 안전을 고려해 조화롭게 이루어지도록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책임을 지게 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 성평등 공간 조성은 포용적 도시로서 모두가 자유롭게 평등한 시민 공간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며 “이번 사업은 단순히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넘어서, 사회적 약자가 존중받는 진정한 의미의 ‘성평등’ 도시로 자리 잡는데 중요한 계기로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군포시, 건강검진으로 업무관련질환 DB구축

군포산업진흥원(원장 유병직)은 근로자 건강권 보장과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업무관련성 질환 DB등록·관리사업’의 일환으로 내부 직원 대상 건강검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검진은 10월 23일(목) 군포소공인특화지원센터(당정동) 2층 회의실에서 경기의료원 수련병원 간 협업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번 검진은 단순한 복리후생 차원을 넘어, 업무관련성 질환 DB 구축사업과 연계하여 근로자 건강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모델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혈당·혈압·콜레스테롤 검사 등 주요

항목과 전문의료진의 건강상담을 통해 직원 개인별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사후관리까지 연계할 계획이다.

유병직 원장은 “이번 건강검진은 공공기관 근로자의 건강을 지키는 동시에 건강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예방 중심 관리체계 구축의 출발점”이라며 “향후 중소기업 근로자 등 지역사회로 확대해 사회적 가치와 ESG 경영을 함께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군포산업진흥원은 이번 검진을 시작으로 근로자 건강관리 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상담 및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연계하고 데이터 기반의 공공형 복지모델 구축을 통해 지역 산업현장의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근로환경 조성에 기여할 계획이다.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기간 고양페이 5% 페이백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오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 12일간 진행되는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을 맞아 고양페이 결제금액의 5%를 환급(캐시백)하는 특별한 행사를 한다고 밝혔다.

시는 행사 기간에 지역화폐인 고양페이를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기존 할인율 10%에 더해 결제금액의 5%를 캐시백으로 지급한다.

1인당 최대 1만원까지 지급되며, 예산 소진시 행사는 조기 종료된다.

다만, 민생회복 소비쿠폰등 정책수당 등은 결제금액에 적용되지 않으며, 결제금액 중 사용자 충전금에 한해서 적용된다.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은 ‘희망이 되는 소비, 함께 성장하는 경제’를 슬로건으로 한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국가통합 소비 활성화 프로젝트이다.

시는 이번 행사가 가게 부담을 줄이고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추가 인센티브 지급은 지역 소비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안양시, '박달 스마트밸리

사업' 시행자 지정

안양시는 지난 24일 국방부로부터 ‘박달 스마트 시티 조성사업’(안양 50만㎡대 이전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안양시는 사업 추진에 따른 계획단계를 넘어 군사시설 이전과 도시개발을 병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박달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은 안양시가 만안구 박달동 일대(328만㎡) 군부대의 대규모 탄약시설을 지하화해 국방부에 기부하고, 용도 폐지된 부지를 양도받아 첨단산업·문화·주거를 갖춘 스마트 융복합 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안양시는 앞으로 국방시설본부 및 민간 컨소시엄과 협력해 탄약 시설 현대화와 이전을 위한 설계·착공 등 후속 절차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030년 준공을 목표로 내년 상반기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해 2027년 착공한다. 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해제,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최대호 시장은 “박달 스마트시티 복합 문화 조성 사업은 2013년 처음 군 탄약 부대에 공식 제안한 사업”이라며 “이번 지정을 계기로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등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임금님표이천쌀

미국 서부로 직수출

이천시(시장 김경희)가 2022년부터 추진해온 대미 쌀 수출이 현지 소비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으며, 미국 서부 지역으로까지 시장을 확대했다.

28일 대월농협에서 열린 ‘이천쌀 미국 서부지역 수출 기념 축하식’에는 김경희 이천시장, 박명서 이천시의회 의장, 김현수 농협중앙회 이천시지부장, 이태영 농업기술센터소장, 쉼카린 조백현 부대표 등 관계자 등이 참석해 수출 확대를 축하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천시는 농업을 공공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성과 중심의 융합적 정책을 추진해 같은 생산량으로 더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프리미엄 농산물 생산 기반을 다지고 있다”며, “임금님표이천쌀은 이러한 노력의 성과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시장에서 사랑받는 K-푸드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천시의회 박명서 의장은 “김경희 이천시장의 선제적 농업정책을 의회가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여야를 초월해 농업인 지원에 한뜻으로 협력하고 있다”며 “이천시의회는 명품 농산물의 고장으로서 농민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수출을 추진한 지인구 대월조합장은 “국내 내수성품중인 이천쌀 해路和 앞장미는 밭맛도 좋고, 재배도 수월해 농가 소득이 많이 향상됐다”며 “이천쌀은 국내 판매량도 꾸준히 증가해 올해는 8월 중순 이미 2024년산 재고가 소진되었고, 2025년산 햅쌀 역시 순조롭게 판매 중”이라며, “임금님표이천쌀 많이 소비해 달라”고 말했다.

송민수 기자